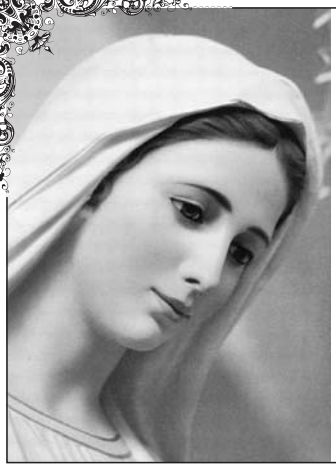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2010, August / 제57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한 번 나는 기쁘게 나를 따르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의 구원자이신 내 아드님께로 이끌어 주고 싶다.
그분 없이 너희는 기쁨과 평화, 미래
혹은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기쁘게 기도하고 의탁해야 하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0년 7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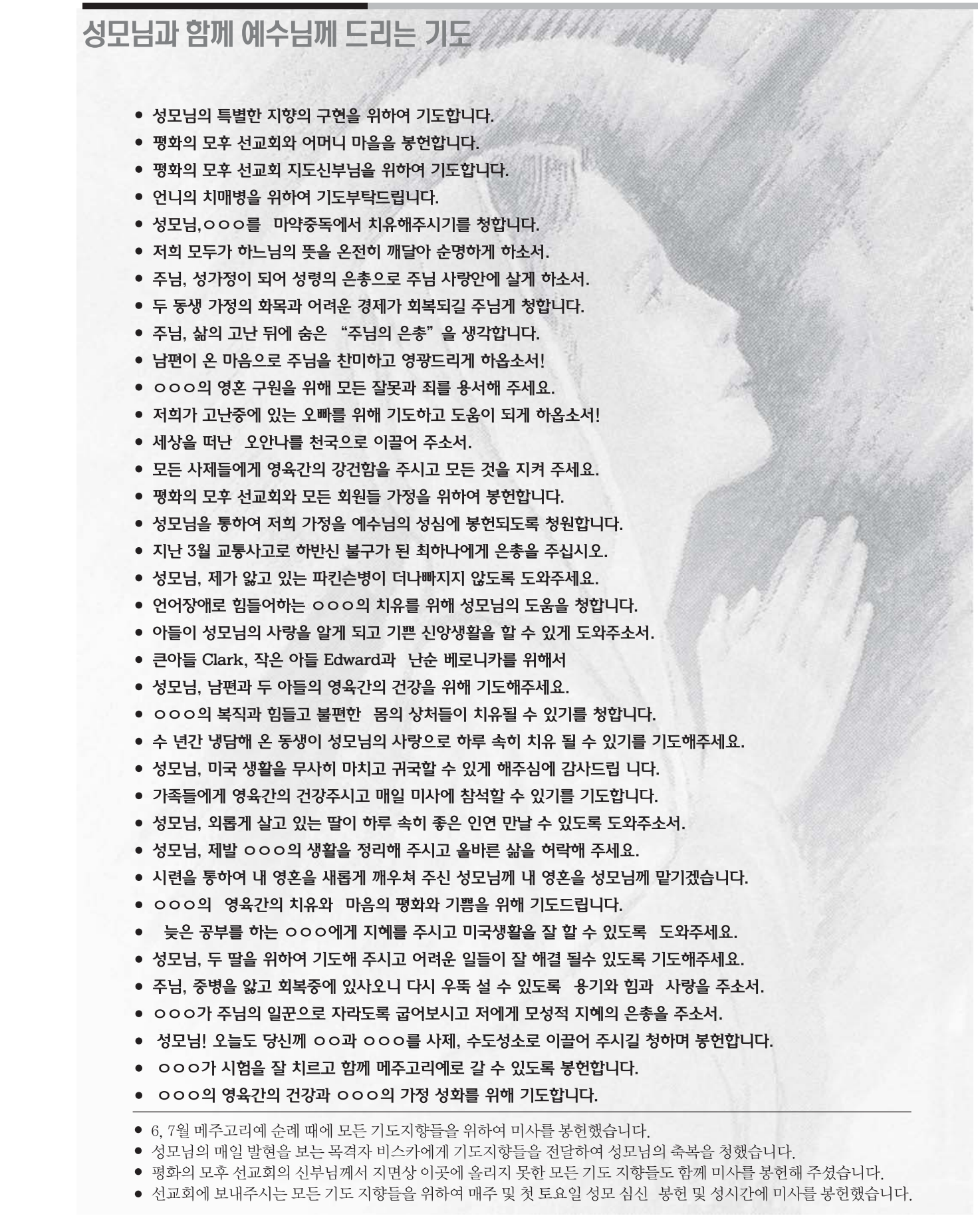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숭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단 1초라도
떨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성체 앞에 앉아 아무런 바람도 없이 그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흠숭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안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흠숭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써 세상을 구속하셨사오니 저희는 여기와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성당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www.qpmm.org '성모님의 메세지'에서 발췌

표지 설명 : 메주고리예 본당의 야외 제대 (2009년 Youth Festival)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언니의 치매병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 성모님,ㅇㅇㅇ를 마약중독에서 치유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저희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순명하게 하소서.
- 주님, 성가정이 되어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사랑안에 살게 하소서.
- 두 동생 가정의 화목과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길 주님께 청합니다.
- 주님, 삶의 고난 뒤에 숨은 "주님의 은총" 을 생각합니다.
- 남편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드리게 하옵소서!
- ㅇㅇㅇ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저희가 고난중에 있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 세상을 떠난 오안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소서.
- 모든 사제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 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모든 회원들 가정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 성모님을 통하여 저희 가정을 예수님의 성심에 봉헌되도록 청원합니다.
- 지난 3월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최하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 성모님, 제가 앓고 있는 파킨슨병이 더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언어장애로 힘들어하는 ㅇㅇㅇ의 치유를 위해 성모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 아들이 성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 큰아들 Clark, 작은 아들 Edward과 난순 베로니카를 위해서
- 성모님, 남편과 두 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ㅇㅇㅇ의 복직과 힘들고 불편한 몸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 수 년간 냉담해 온 동생이 성모님의 사랑으로 하루 속히 치유 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미국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 니다.
-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주시고 매일 미사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 외롭게 살고 있는 딸이 하루 속히 좋은 인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제발 ㅇㅇㅇ의 생활을 정리해 주시고 올바른 삶을 허락해 주세요.
- 시련을 통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깨우쳐 주신 성모님께 내 영혼을 성모님께 맡기겠습니다.
- ㅇㅇㅇ의 영육간의 치유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늦은 공부를 하는 ㅇㅇㅇ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국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두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주님, 중병을 앓고 회복중에 있사오니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사랑을 주소서.
- ㅇㅇㅇ가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굽어보시고 저에게 모성적 지혜의 은총을 주소서.
- 성모님! 오늘도 당신께 ㅇㅇ과 ㅇㅇㅇ를 사제, 수도성소로 이끌어 주시길 청하며 봉헌합니다.
- ㅇㅇㅇ가 시험을 잘 치르고 함께 메주고리예로 갈 수 있도록 봉헌합니다.
- ㅇㅇㅇ의 영육간의 건강과 ㅇㅇㅇ의 가정 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 6, 7월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및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성모님 발현 29주년 기념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님의 치유 피정 (1)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님 : 크로아티아 쟈가브리아 대교구 소속으로 1967년에 서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과 교회신학 박사, 현재 쟈가브리아 신학대학의 교수, 2002년부터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 위원선임.

치유강연 1

존경하는 신자여러분과 순례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바티칸에서는 몇달 전 메주고리예의 발현을 위한 국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즉 바티칸의 교리신앙성에서는 메주고리예가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장소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신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된다면, 분명 "메주고리예는 가톨릭 신심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장소다."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사회와 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곳이라면, 교회는 분명히 메주고리예의 진실을 인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여러분들과 함께 과일나무, 혹은 채소를 한번 모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는 과일이라도 여러분이 먹고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 다시 새로운 과일이 맺어지고 또 그 씨앗이 되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견진성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영하면서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체를 영하자마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 이제 조금있으면 미사가 끝날거야. 빨리 집에 가서 이것 저것을 해야 축구경기를 볼 수 있어.' 우리는 미사 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기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입니다. 신앙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정을 하면서 강연을 받아 적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기보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으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회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법을 훈련해 봅시다. 어느 날 대천사가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리아, 하느님의 아들을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놀랍니다. 천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달은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그 말은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천사가 전해 준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심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 마리아 안에 잉태하셨고,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활을 하셨지만 12제자 중 그 누구도 변화되지 못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성사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70인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분의 엄청난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발현증인들 그들이 20년동안 29년동안 성모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도. 발현증인들처럼 성모님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가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완전하게 변화되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라고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청해야 할 것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결심 후 '성령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으며 각자가,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회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인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5살 먹은 어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디에게 그 아이에게 '과자를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꼬마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 보던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3일 뒤에 다시 와주십시오.' 3일 후 그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에게 갔습니다. 간디는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애야, 더 이상 과자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죽는단다. 너는 지금 병이 들어 있지않니, 네가 더 이상 과자를 먹지 않는다면, 다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거야.' 그리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기가 막혀 되물었습니다. '각하, 아니 그런 말이라면 3일 전에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부인 왜냐하면 3일 전에는 저도 과자를 먹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아이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 3일 동안 단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단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도 제 말을 믿고 더 이상 과자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제들, 수도자들의 성화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말다툼을 하고 대화가 단절 되었던 남편에게, 부인들에게, 자식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간다면, 그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침묵속에서 단식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단식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친지들과 가정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어떤 상황속에서도 거룩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스스럼없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29년 동안 이곳 메주고리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강론과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매주일마다 수 많은 도시에서 주일 미사가 이루어지고 강론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지만 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누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많은 복음을 듣고 성체를 영하지만 누가 회개합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제가 이거 하고 싶으니깐 도와주세요.' 라고 청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성령님, 제 육의 모든 세포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 저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 여러분, 사랑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랑의 모종을 마음에 꼭꼭 새기고 잠들기 전에 마음에 심으십시오. 다음 날 온 종일 이 사랑의 나무를 잘 관리하시고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잉태되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고 사랑하셨고 태어나길 기다리셨습니다. 육신의 엄마와 아버지,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육체를 주신 것이고, 하느님은 직접 여러분에게 마음과 영을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인성과 인격과 의지와 지혜와 슬기를 심어 주셨고 심성과 성격을 주셨습니다. 동물이 아닌 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인격들을 하느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것이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번째 모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오후 4시 30분 이곳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수백 번씩 반복해보십시오. 내가 태어 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고, 인도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푹 잠겨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안에 남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속에 풍덩 잠겨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물결속에서 한번 헤엄을 쳐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어떤 상황속에서도 거룩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수락하는 것, 그 뜻은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릎위에 앉아서 '아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나의 진짜 아빠이시지요!' 라고 맘껏 어리광을 피우는 것입니다. 잠깐 침묵하면서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사랑의 나무를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보십시요. '하느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기다리셨습니까? 내가 당신의 희망이고, 내가 오늘 이곳 메주고리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나를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라 하시는 나의 주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를 당신의 창조물로 만드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하느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느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포옹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드릴 수 있

그래, 딸아. 네가 있어서 참 좋구나!

도록 내 마음 안에 그분의 계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치유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암으로 부터도 치유됩니다. 그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자살 유혹이나 두려움,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걸리는 가장 큰 중병은 죄입니다. 이 죄에 의한 질병은 어떤 마약중독이나 알콜 중독자들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의 나무를 여러분들의 삶안에 심으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잠시 모두 일어나셔서 정말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의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두 함께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언어로 주의 기도를 봉헌해봅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신체기능을 활발히 깨우쳐 줄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을 모으십시오. 엄마가 막 태어난 아기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하느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십시오. 침묵속에서 다시 한번 이 주의 기도를 마음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마음을 모아 묵상하듯이 천천히 해봅니다. 이 기도는 성모님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그래서 정말 향기로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내 영혼과 온 몸을 적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 : 여러분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당신이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칭거 교황께서는 추기경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왼쪽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이 있으니 참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네가 있어서 나도 좋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좋는 것만 창조하십니다. 아주 귀중한 것만 창조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

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닙니까! 하느님께 귀하시니 여러분들도 귀중한것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제 책을 사서 학생인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존재해서 좋구나'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딸은 의아해 하면서 '이게 무슨책이야?' 하면서 물으니까 엄마가 "읽어봐!" 라고 했답니다. 그 딸은 그 책을 보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진짜?"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래, 딸아! 네가 있어서 참 좋구나." 딸은 엄마를 꼭 끌어앉고 오래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속에서, 삶속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이 살아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이 흔들립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 부인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라고 한번도 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들의 가정안에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마. 잘 될거야.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해 보이십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미소를 띄고 있습니까? 혹시 우울하고 슬픈 모습이라면, 혹은 노쇠하고 초췌하고 우울해 한다면, '괜찮아요. 잘 될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거예요.'하고 덕담을 건네주세요. 하느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덕담을 한다면, 바로 하느님의 덕담, 하느님의 좋으심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의 육신에 있는 모든 세포는 우리들의 생각을 느낀다는 과학자들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생각하는 대로 기능하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거야 하고 생각했을 때, 즉시 그 생각이 모든 세포로 전달이 되어 함께 협력해서 움직인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

고해성사를 보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을 때 여러분은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까? 현대의 많은 불치병의 70%가 이렇게 치유된답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린 노인들, 메주고리예에 가고 싶지만 질병때문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고 귀도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몸의 기능과 세포들이 서서히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의탁할 때, 긍정적인 생각들이 그 세포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서 나쁜 세포들을 죽인다고 합니다.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있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할 모습이 내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수치심에 젖어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거야.' 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구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메주고리예 순례를 하면서 새롭게 부활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도 말해보세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요. 단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법만 바꾸었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보세요. '내가 살아 있어서 참 좋다. 내가 없다면 세상은 불행해질거야.'

오늘 우리에게 심어진 3개의 모종은 무엇입니까? 즉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바라셨다.' 입니다. 나는 귀중한 하느님의 창조물. 그분의 아들과 딸이다. 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번째 모종입니다. 두번째 심어야 할 모종은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던지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멋지군요. 국장님, 과장님,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얘야, 네가 있어서 참 좋구나! 자매님, 형제님,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번째 심어진 모종입니다.

세 번째 :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혹은 지나치게 무언가 집중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잘 될거야. 모두 잘 될거야. 하느님은 좋으시잖아. 하느님은 그 누구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셔! 죄가 우리들를 지옥으로 보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 걱정하지마 잘 될거야.'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들 몸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을 때 여러분은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옥, 즉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때, 그래 잘 될거야. 잘 될거야. 또 여러분 이웃에게도 잘 될거예요. 라고 말해 줄때, 그 사람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뀝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강연을 통해서 3개의 모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잘 심고 가꾸어서 이 3개의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로 해 보십시오. 저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말로 정말로 수 천만의 사람들이바뀌고 육체적으로도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수백명의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혹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는 하느님께 귀중한 사람'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라는 말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두고 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미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교신자들이 세상을 살아 가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병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다리고 바라셨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모든게 잘 될거야. 걱정하지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신체기능 자체가 완벽히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거룩해 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순례자 여러분, 이 세가지만 실천해보십시오. 잊지 말고

육적으로 성모님을 보는 것보다 먼저 내적으로 성모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변화되고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습니다. 왜냐면 믿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여러분은 수백번의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했을텐데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분심이 오고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말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말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너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단 너희들이 믿을 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입으로 하는 수십단의 로사리오 보다는 마음을 모아 단 3번의 성모송을 드려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잠깐 침묵 중에 성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십단의 로사리오를 봉헌한다 하도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기도할 때 성모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지 못합니다. 1982년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어느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메주고리예 발현 증인들이 부럽지 않아요. 기도로 제 영혼안에서 성모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라고 할 때, 성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기뻐요. 목격증인들은 7~8분동안 육체적으로 성모님을 만나지만 기도안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성모님을 보는 것보다 먼저 내적으로 성모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변화되고 회개할 것입니다.

가톨릭기도의 가장 신심있는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양의 기도보다는 간단하지만 그런 로사리오 기도가 귀중한 것이고 성모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 메주고리예에 오신 이유는 다름아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입니다. 마음이 담긴 단 한마디의 기도에도 성모님은 행복해 하시고 이곳에서 성모님을 보는 발현증인들 보다도 더 완벽하게 성모님을 보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성모님을 더 잘 기억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한 기도 안에서 영혼의 눈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영혼의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천천히 또는 큰소리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불러보세요. 성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베 마리아! 성모님은 분명 우리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으고 우리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 성모송 기도를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안에서, 영혼의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보세요. 성모님은 미소를 짓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천천히 성모송 기도를 봉헌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안에서 '아이구 내아들! 아이구 내 딸!' 하시는 성모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더냐. 이분이 네 엄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은 성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모님을 마음으로, 집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성모님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제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의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믿는 이들에게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기도의 학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주의 기도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해보십시오.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성모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성모송을 하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저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 오후 4시30분 다시 계속해서 우리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학교에서 참여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겁니다. 저는 금요일 마지막 피정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은 완벽히 변화된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23일 M

다음호에 두번째 피정 강론이 연재됩니다.

성체의 어머니

330 1986년 8월 8일 루비오 (빈첸시)
거룩한 묵주기도 합송후 (성모님의 육성 메시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흠숭과 사랑과 보속과 감사의 사제 순례단이 되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 하느님이시요 내 하느님이신 예수께, 위로를 드리려고 이곳에 온 걸 보니 내 마음 가득 기쁨이 넘치는 구나! 지상의 모든 감실 안에 참으로 계시는 사랑의 현존이신 그분이, 허다한 무관심과 배운망덕에 둘러싸여 공허속에 홀로 계시곤 하니 말이다! 예수 성심께 너희는 이토록 기쁨을 바쳐 드리니 고맙다. 그분은 흐뭇해 하시며 미소를 짓고 계신다. 너희에 대한 사랑에 겨워 어쩔 줄 모르시면서!

고맙다. 깊은 고통에 잠겨 있는 '천상엄마'의 티 없는 마음에도 너희가 기쁨을 안겨 주니까...

나는 고통에 잠긴 '성체의 어머니' 이다.

사랑의 중심이신 '예수성체'를 에워싸고 살아 고동치는 '승리교회' 및 '정화교회' 와 함께, 지상의 '순례교회' 곧 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인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인 너희도 모두 모여야 한다. 천구과 연옥과 일치하여 영원한 흠숭과 찬미의 송가를 바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늘 날, 텅 빈 공허와 극심한 무관심과 배은망덕이 감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시대가 되었거니와, 그때 나는 내 발현에 앞서 파견된 '천사'의 음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음의 기도를 가르쳤다. 이는 공중에 나타나신 성체 대전에 바친 기도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님, 당신을 깊이 흠숭하나이다. 또한 세상 모든 감실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쳐드리오니,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능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갚기 위함이나이다…

이는 바로 너희의 이 시대를 가르친 기도이다. 예수께서는 오늘 날 '공허'에 싸여 계신다. 이 공허는 특히 사제인 너희들에게 기인한다. 너희가 사도적 활동을 할때 흔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일들을 좇아 무익하게 겉도는 통에, 사제다운 하루 일과의 중심이 '여기' 감실 앞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감실, 누구보다 너희를 위해 모셔져 계시는 감실이니 말이다. 그분은 또한 내 수 많은 자녀들의 '무관심'에 싸여 계신다. 그들은 마치 예수께서 감실안에 계시지 않기라도 한 듯이 ,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와서도 그들 가운데 참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인 그분께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흔히 성당 구

석에 모시곤 하는데 마땅히 중앙에 모셔서 그분께 교회 집회의 중심이 되시게 해야한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선 그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감실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수 많은 교회의 태도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한다. 교회 집회에 사용되는 무슨 물건처럼, 변변찮은 구석자리에 그분을 모셔 두니 말이다. 그러나 오늘 날, 티 없는 내 성심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관이 되는 것은 성체께 대한 '모독' 이다. 이 시대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모령성체를 하고 있다! 성찬식이 거행 될때마다 모령성체가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엄청난 상처가 얼마나 교회 전체에 퍼지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마비시키고 침체시키며 불손하게 만드는지, 또 얼마나 중병에 시달리게 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너희 역시 한정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잠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성심에 봉헌한 내 소중한 사제들과 자녀들아, 너희가 바로 오늘 날의 순례교회 전체를 '성체'안에 계신 예수께로 다시 불러드리는 '우렁찬 소집 나팔'이 되어야 한다.오직 그분께만 교회의 메마름을 깨끗히 고치고 사막이 되어 버린 교회를 새롭게 할, 살아 있는 물(요한 4,10:7,38) 이 솟는 샘이다. 오직 그분께만 은총과 빛의 '두 번째 성령강림'을 향해 교회를 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다. 오직 그뿐께만 쇄신 될 교회의 거룩함의 원천이 있다.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예수께만!

그런즉 너희의 사목계획이나 토론, 너희가 의지하고 믿는 인간적인 수단들이 전체 교회에 완전한 쇄신력을 줄 수 없다. 오직 성체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이다. 그분만이 가난하고 복음적이며 순결한 교회, 모든 인간적 의짓거리로부터 벗어난 교회, 거룩한 교회, 너희 '천상엄마'를 닮아 흠도 주름도 없이 아름다운 교회(에페 5,27 참조)가 되도록 이끄실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이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도록, 내 책에 앞서 수록된 메시지들 사이에 실어 주기 바란다. 그렇다, 전세계에 전파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진정한 '어머니 –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의 기쁨에 겨운 어머니이지만 동시에 고통에 잠긴 어머니 이기도한 – 인 나의 티 없는 성심에 씌울, 사랑과 흠숭과 감사와 보상의 화관이 되라고, 내가 오늘 날 전세계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

(이 메시지는 다락방 기도회의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행복한 부부생활은자녀들의 행복입니다!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이런 부부를 초대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 하는 부부의 변함 없는 사랑은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하기에
그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ME 주말은 대화를 통한 깊은 사랑의 삶을 소개하므로서,
자신의 혼인 생활을 되돌아 보고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행복한
동반자로 평생을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일시 : **동부지역 2010년 9월 4일 ~ 9월 6일**
장소 : **Wyndham Garden Hotel**, (Newark Airport, NJ)
문의처 : **임재홍 (라파엘), 영미 (오틸리아) 부부**
Tel : **908) 403-7833(H), 908) 403-9299(W)**
E-Mail : **seapig63@gmail.com**

일시 : **서부 지역 2010년 9월 3일 ~ 5일**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문의처 : **남동진(프란치스코), 경임(아네스)**
Tel : **714)469-9816**
E-mail : **francisagnes.me@gmail.com**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2010년 6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쁘게 내 메시지 대로 살라고, 나는 기꺼이 너희 모두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너희가 내 아드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오직 그분께로만 이끌어 주고 싶고, 너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축복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쁘게 내 메시지 대로 살라고, 나는 기꺼이 너희 모두를 부른다: 메주고리예 발현 29주년인 오늘,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쓰셨습니다. 먼저 성모님께서는 기꺼이(기쁘게) 우리 모두를 부른다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당신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성모님은 우리의 죄나 부족함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며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고 목청을 높이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민하고 품어 주시면서 영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으시면서 '너희 모두'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모님께서는 '기쁘게 내 메시지 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구속하여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늘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대로 사는 것을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혹은 짐스럽게 생각하면서 찡그린 얼굴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너희가 내 아드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우회도로' 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길이 막힐 경우 대안 도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는데도 우회도로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성모님의 메시지 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분명 성모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쁘게 그분의 메시지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기도하기 보다는 텔레비젼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고, 성경을 읽기 보다는 신문이나 잡지, 책 혹은 인터넷에 먼저 손이 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메시지 대로 사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오직 그분께로만 이끌어 주고 싶고, 너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1981년 6월 24일 이래 지난 29년 동안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예를 통하여 매일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온 세상을 상대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단 한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대단한 집념을 지니신 어머니이십니다. 직접 표현하신 것처럼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결코 지칠 줄 모르시고, 피로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오직 예수님께로만 이끌어 주고 싶어하시는 그분의 열망이 우리 마음 깊숙이 전해지고, 그분의 열망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가려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발견하고, 한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축복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시는"(마태 5,45)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요한 4,8) 성부의 딸이시고, 성자의 어머니이시며,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께서는 이 사랑의 하느님과 늘 하나되어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역시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의 도움에 힘입어 기쁘게 그분의 메시지 대로 살면서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합시다.

하느님,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 또 사람들 서로 간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저희에게 보내 주신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성모님을 통해 들려오는 당신의 메시지와 말씀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성모님, 구원자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에 넘치셨던 당신처럼 저도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에 넘치고 싶습니다. 성모님, 당신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결심하오니 계속해서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

회개는 우리의 의무이고 소명입니다.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 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십니까?

요조신부 : 발현 초기에 성모님께서는 사제들에게 특별히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청하신 대로 미사가 끝나면서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성물 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당의 축복기도나 치유의 기도는 전례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서 모든 가르침이 끝난 뒤, 동석한 신부님들께서 안수기도를 받으신 후, 성당 안에 함께 있는 신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십자가와 고통을 안고 하느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응답하시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가르침을 끝내면서 항상 십자가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강의를 한 후에는 항상 성시간과 성체강복을 하면서 축복할 때, 많은 이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50 여명의 사제들이 신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기 위해 제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참석한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질문 :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어떤 순례자들은 성령의 안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조신부 : 성령의 안식은 완전한 신비이고 내적인 과정입니다. 분명히 하느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선물이지만 사람들마다 이런 은총을 받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안식에 들었던 사람이 체험을 발표할 때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안식은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을 찾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질문 : 신부님 개인적으로 성모님께 전구하셔서 얻어진 기도가 있는지요?

요조신부 :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

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질문 :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구마 등의 문제로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조신부 :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마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악과 악령의 지배에 묶여 있습니다. 증오하는 것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악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질투, 증오, 시기에 의해 더 자주 발생하고 신앙결핍과 비윤리적인 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증오와 질투죠. 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질투는 착한 행동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악마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도 악마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서 질투하면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모든 일을 부정했습니다. 질투심이 정직함을 가로막았고, 비도덕적이게 했고, 모욕하면서 백성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님 바르티메오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르코 10, 47) 또 나병환자가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오 8, 2; 마르코 1, 40; 루가 5, 12).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오로 똘똘 뭉쳐져서 증오심을 무기삼아 상대를 증오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자기방어를 뉘우칠 줄 모르고 거부감과 경멸감으로 뒤덮고 있는 것은 악의 지배입니다. 증오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당이나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을 통해 예언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분명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웃을 짓밟으려고 악과 손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악의 제물이 되어버리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자매였는데, 나는 무엇인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성체를 영하고 싶어 해서 시험삼아 축성되지 않은 밀병을 내밀었더니, 당장 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이런 거 말구, 감실 안에 있는 그것을 달란 말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치료되었지만 처음에는 무척 큰 아픔에 시달렸고,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누군가를 빼내고 위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느님께 돌아가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외침이죠!

질문 : 악으로 괴로워하는 순례자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요조신부 : 다른 순례자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먼저 소성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척 소란을 피우고 다른 이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안과 초조감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자들이 두려워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겁을 먹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는 구마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마예식을 할 때 가끔씩 신부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현장의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부님들께서는 이런 구마예식에 참여하기 전까지 부마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마 들린 사람에 관한 것은 어떤 이미지의 형상화고 진짜 사건이 아니라고 여겼다고 말하는 사제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부마는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부마자가 천하장사 같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덟 명이나 되는 어른들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할 때도 있답니다.

질문 : 정신질환자가 찾아 왔을 때 솔직히 본인에게 말씀하시나요?

요조신부 : 절대로 직접 말하지 않고 동반한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병원이나 누군가 적당한 전문의를 찾아가도록 권하고, 크로아티아 사람이라면 의사에게 제가 직접 편지를 써줍니다. 선종하신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 올 때마다 지정하신 한 의사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악마의 영향으로 보다는 병으로 의사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태가 막바지에 있다고나 할까…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병자와 부마자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기록문서나 사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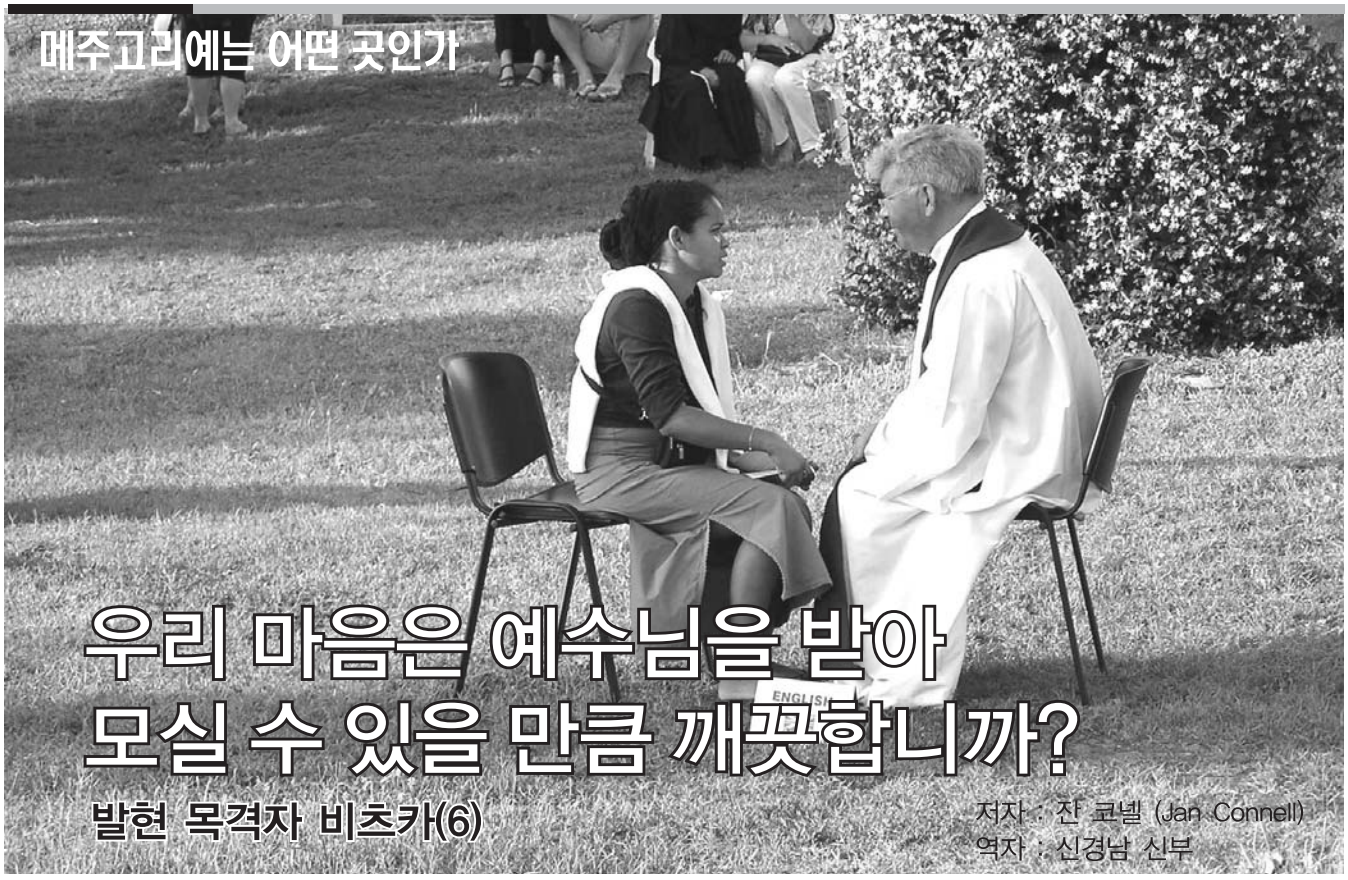
질문 : 신부님, "아휴, 이제 됐어. 좀 쉴 때야" 라는 경우가 있는지요?

요조신부 :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막중하기 때문에 쉬고 싶다는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육체의 피곤이 있을 때마다 약간의 휴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신이 지쳐서 피곤을 느끼는 일은 없습니다. 전심으로 모든 것을 내주고 난 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육체적인 피곤보다도 저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가 열매와 표징들을 부정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 볼 수 있다."(마태오 7, 20).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불치병에서 치유되고 난 뒤 교회의 장상에게 인준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찾아오지 마시오!" 이런 것이 진짜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교회가 그런 열매들을 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메주고리예의 발현이 지속되는 동안은 교회의 인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고 메주고리예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메주고리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책임자의 입맛에 맞게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원회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젊은 임산부를 집에 들이면 귀찮은 일이 벌어지겠지? 내가 그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구. 차라리 못 본 척 하고 다른 집으로 가도록 하는 게 낫지…"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라니! 그때나 다름없는 현대 사람들은 그 잘난 생활을 지키려고 철저히 자기 방어를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하고, 성모님의 메시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단식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요.

메주고리예는 기록문서나 사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단식과 묵주기도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단식하지 않으면서 그 효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메주고리예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확장시키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무이고 소명이며 전 삶에서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들을 거부하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내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입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돈에 눈이 멀어 메주고리예에 해를 입히기도 하고 조직적인 어떤 단체들에 의해 메주고리예를 파괴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집장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가들의 돈에 얽힌 비리들을 샅샅히 캐내어 흥미위주의 기사 쓰기를 즐겨하는 기자들 메주고리예에 있지도 않는 말과 사건으로 악평을 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 교구장님께서는 메주고리예의 발현을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늘이 주시는 이런 은총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아드리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관할 교구에서 메주고리예에 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주교님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각 교구 신자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녹아 있는 것이 메주고리예이기 때문입니다. 주교님들도 메주고리예의 열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은총을 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메주고리에 본당이 속해있는 교구에서 메주고리예 발현에 대한 악평과 비방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메주고리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제들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이 먼저 입수되더군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용기가 없어서 메주고리예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주고리예는 힘을 얻고 크로아티아의 모든 도시마다 살아 있고,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모든 세상 안에 살아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한 장소가 아닙니다. 메주고리예는 평신도들로 인해 살아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용기와 받은 부르심을 통해 드러나는 정신입니다. 그 열매들이 메주고리예를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M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합니까?

발현 목격자 비츠카(6)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역자 : 신경남 신부

질문 : 비츠카,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비츠카 : 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하느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 기도를 청합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요?
비츠카 :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아픈 사람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비츠카, 발현목격증인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비츠카 :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고통을 겪게 될지 아십니다. 우리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모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라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 :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개인적인 십자가를 허락하신다지요?
비츠카 : 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태어난 곳, 신체 조건같은 것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왜 이 모든 것을 선택하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제게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 환자나 장님, 버림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츠카 : 하느님께서 질병이나 실명, 또는 다른 불행을 허락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그 불행을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불행들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도 아십니다. 우리는 정말 나약하기에 이런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가 고통 받는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받는 고통도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도록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을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 비츠카, 당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비츠카 : 네, 성모님께서 제 삶의 중심은 성체성사임을,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성체임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질문 : 성체성사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비츠카 : 성체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 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합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참으로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비츠카 : 거룩한 미사 중에는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뵙고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미사 중에는 특별히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수록,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의 모든 거룩한 말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사 중 살아 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분께서 진실로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미사가 끝나 성당을 나설 때,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들 중 세상의 죄에 대한 징벌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비츠카 :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세상의 죄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 세상의 종말, 묵시록에 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비츠카 : 아니오, 전혀 모릅니다.

질문 : 사람들이 그때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비츠카 :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들을 두려워한다면,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은 오직 사탄에게서 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란시켜 우리가 마음을 닫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확신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비츠카 : 가장 좋은 준비는 매일 기도하고, 미사에 참례하며,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와 보속으로 사실상 징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준비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영원토록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바꾸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좀 더 가벼운 징벌의 시기를 보내게 될까요?
비츠카 :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징벌에 대비해 그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그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메주고리예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사는 바른길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지점에서 멈출 것이라고 보십니까?
비츠카 :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에 마음을 연다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시는 자비도 멈추게 됩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에 영원한 표징이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게 됩니까?
비츠카 : 그렇습니다.

질문 : 그 영원한 표징이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 나타나게 됩니까?
비츠카 : 그렇습니다.

거룩한 미사 중에는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질문 :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회개할 정도로 믿지 않으며, 영원한 표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츠카 : 그들에게, 그때는 이미 늦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발현을 이처럼 오래 계속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하느님을 맨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자 하지 않으면,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질문 :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까?
비츠카 : 그럴지도 모르지요. 저는 모릅니다. 이런 질문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질문 : 비츠카, 예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비츠카 : 제 눈으로 예수님을 뵌 것은, 첫 번째는 성모님께서 팔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발현하신 성탄절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탄절마다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오십니다. 2년 전 성금요일에,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가시관을 쓰고 찢겨진 옷을 입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당신 아드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 그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도록, 이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고 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비츠카 : 마지막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없이 지내기 바란다. 특히, 너희가 죄를 거부하기 바란다. 제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행하여라. 그분께서는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너희를 위해 이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단다."

질문 : 메주고리예 메시지들은 교회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다시 듣게 해 주고 있습니다.
비츠카 : 물론입니다! 성모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서를 되풀이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아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곳에 계십니다.

질문 : 왜 하느님께서 당신을 만드셨는지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비츠카 :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인 우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계획의 일부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큰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도 큰 사랑을 체험합니다. M

이 기사는 6명의 메주고리예 발현목격증인 체험담인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한 영국의 성공회 교역자는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저의 교회가 쇄신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톨릭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간청한다. 그는 "그러면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화의 모후를 공경하기 위해 메주고리예를 방문하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성모님께 의탁하며 그분께 기도드리고,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도록 청하기 위해 메주고리예를 찾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영국 성공회 교역자인 로버트 레웰린이 메주고리예를 방문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기차고 영적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발산되는 평화와 기쁨이 느껴진다.

질문 : 본인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로버트 : 저는 꽤 오래전인 1909년에 태어났지만, 하느님 덕분에 아직도 건강합니다. 젊었을 때 수학에 흥미를 가졌고, 제가 태어난 캠브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영국의 몇몇 학교에서 한동안 일하다가 인도로 가서 25년 동안 일했습니다. 자연과학이 제 흥미를 끌었지만,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깊이 빠져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회 신학을 공부하고, 1938년 영국 성공회 교역자가 되어, 13년 동안 성 율리아나 성지 담당 교역자로 일했습니다.

파괴되고 있는 여러 교회와 기도하는 곳, 그리고 인종 말살에 관해 듣게 되면 저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국 성공회 신자들과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있었던 불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수의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들이 파괴되었고, 인종 말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사제들이 얼마나 큰 미움을 샀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은 사정없는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번은 말이 끄는 밧줄에 성모님상을 묶어 산산조각 날 때까지 거리에서 끌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모임과 강연에서 성모님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 영국 성공회 전체 신자 수는 몇 명이고,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로버트 : 4천만 명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 수는 아주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질문 :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 제가 83살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 메주고리예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에게 메주고리예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런던에서보다 이곳에서 훨씬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우리 영국 성공회 신자들은 우리 영성 생활 안에 성모님을 모셔와 그분께 합당한 자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로 이곳 메주고리예가 우리의 영적 쇄신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를 염두에 두면서 기도 공동체를 우리 교회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모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영국 성공회 안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도 공동체는 가톨릭 유산과 기도에 매우 가깝습니다. 저는 신자들에게 마리아님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께 기도하자고 권합니다.
성모님께서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땅인 이곳에서 성모님의 존재 자체가 영감을 줍니다. 이곳 교회에는 진짜 그리스도교적인 분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많은 가정에서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빛이 발산되고 있으며, 발현 목격증인들에게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단순함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화될 수 있었으며 그 변화는 메주고리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바램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질문 : 묵주기도에 관해 해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로버트 : 묵주기도는 묵상 기도이고, 우리를 예수님 가까이 가게 만들어 줍니다. 마리아께서 이 기도의 시작과 끝에 계신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 영국 성공회 신자들이 기도 생활에서 그분을 위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쌍한 처지의 고아일 뿐입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는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기도 바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무 생각없이 그냥 바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또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로버트 : 마리아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코 지쳐서는 안됩니다! 마리아님을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영국 성공회 신자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는 한 형제자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이래, 저는 여러분을 위해 수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발현 목격증인들과 메주고리예 본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같은 영 안에 머무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하느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고,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한 빨리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서로를 형제자매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구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구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그 분께서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주실 수 있어!

마리아나

마리아나는 멕시코에서 실내 장식가로 일하는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주고리예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저는 대단히 독립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처럼 최대한 인생을 즐기고 살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스물두 살 때 몇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 손에 권총을 들고 저희 차로 다가왔습니다. 한 친구가 "머리를 숙여!" 하고 소리쳤지만, 그 청년이 당긴 방아쇠는 총알이 유리창을 뚫고 날아와 저를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실려 갔고, 의사는 제 척추에서 총알을 빼내야 했습니다. 제가 의식을 찾았을 때는 겨우 팔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온몸이 마비가 되어 가슴부터 발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원한 후, 저는 판사들 앞에서 저를 쏜 그 청년을 만났지만 그가 전혀 밉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유력한 가정 출신이었으나 그 가족 중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용서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총은 그 청년 아버지 것이었고, 판사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청년의 회개였기에 판사의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재활 훈련을 받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제 가까이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과 몸은 신비한 힘으로 가득찼기에 저는 치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정작 제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치유였음을 알았습니다. 꿈에서 뵌 성모님은 열두 개의 별이 있는 왕관을 쓰고 계셨고, 그 꿈을 꾼 이후로 그분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메주고리예에 관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티할리나 (요조 신부님이 사목하셨던 메주고리예 인근 본당)의 그 아름다운 성모님상은 놀랍게도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성모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평화는 제가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던 모든 것, 예컨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쁜 장소들을 찾아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

**"당신은 꼭 메주고리예에 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분께서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어!" 라고 말 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제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당신은 꼭 메주고리예에 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몸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메주고리예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에게 치유를 받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징으로,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제 몸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둠과 공허함 속에 살면서 제 영혼을 잃어버릴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당신께 더욱 가까이 데려가시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실한 그분의 사랑에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제 몸의 장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망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제 몸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조급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저의 모든 친구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구하면서 제 삶을 온통 바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친구들이 무신론과 불신앙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 안에 하느님을 모시도록, 또한 그들이 이것이 저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예수님께 저의 고통을 봉헌합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가장 큰 평화를 발견합니다. 제 몸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없어졌습니다. Ⓜ

(www.childrenofmedjugorje 에서 발췌 번역)

간절한 기도 지향을 성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당신은 하느님의 작은 꽃송이 임을 잊지 마세요!

이희아친타 / 고덕동 성당

찬미 예수님, 메주고리예 성모님!

이렇게 성모님의 소식지에 제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홍익 그레고리오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외 공연을 할 때마다 성모성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인들의 순교지인 나가사키 우라카미 천주당에서 연주를 했었고, 아키타에서 신체장애자 복지대회 때는 성체봉사수도원에서 아키타 성모님도 뵈었습니다. 또 파리공연을 할 때는 루르드 성모님도 뵈었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멕시코 공연 때는 과달루페 대성당에 가서 500년 전에 후한 디에고 성인의 망토에 새겨 주신 성모님의 아름다운 그림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늘 메주고리예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은 상이 군경마을에 있는데 집이 워낙 오래되어 터진 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남 그레고리오 회장님께서 어머님 핸드폰에 "벨라뎃다 자매님, 항공권 때문에 메시지 남기니 연락주세요." 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처음엔 어머님께서 "엄마가 영육이 힘들 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소식지를 보고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보일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먼 메주고리예까지 순례를 갈 수 있겠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가야 한다고 계속 우겼습니다. 제가 소띠 해에 태어나 황소 고집이 장난이 아니라서 결국 어머님은 메주고리예 순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 회장님께서 제가 일본 공연가기 전에 연락을 주셔서 티켓을 싸게 살 수 있었답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메주고리예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남북통일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의 모후로 오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우리나라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먼 길이지만 꼭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북녘은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녘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

로, 배고픔을 운명처럼 안고 살다 죽어 가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모님 발현 29주년 기념일인 6월 25일은 남북간의 비극적인 민족전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6월 18일,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순례를 떠났습니다. 뮌헨 공항에서 그레고리오 회장님을 만나, 다음 항공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여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아~ 이제 정말 성모님이 계시는 메주고리예를 가는구나." 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스플릿 공항에 도착했는데, 다시 차를 타고 2시간 30분을 가야 한다고 해서 참~ 성모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늦은 밤 메주고리예에 도착해 책에서만 보던 메주고리예 성당이 보일 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또 로마에서 오신 김동수 노엘 신부님을 뵙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간다고 하니 우리 신자들을 제외한 주변 지인 분들이 거기는 전쟁이 난 곳인데 왜 가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했던 전쟁 중에도 메주고리예 마을에는 폭탄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아침 빵과 주스, 계란 오믈렛, 커피를 마시고 평화의 마을 메주고리예에서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팀을 기다리면서 회장님과 노엘 신부님, 저와 어머님, 갈렙 오빠와 같이 성지를 둘러본 후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는 분께 "메주고리예는 돌산이 있는 완전히 촌 시골이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성당 주변에 호텔, 레스토랑, 성물 상점 등이 많아서 놀랐답니다. 무릎에서 물이 흐르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상도 보았는데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 성지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단식하고 미사하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오후 6시부터 묵주기도를 하고 40분에 성모님의 발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7시에 시작하는 크로아티아어 미사는 각국어로 동시 통역이 되는데, 처음엔 한국어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로 들어야 해서 좀 힘들었지만 미사는 무척 은혜로웠습니다. 이틀 후부터 마르타 자매님의 통역을 들었는데 너무 다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인 16명이 함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발현목격증인들의 친구인 안내인 드라가 자매님이 갑자기 저에게 발현목격증인 이반카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제 CD를 받은 그분은 저를 꼭 안아 주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메주고리예 발현산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인이 봉헌한 성모님상이 있습니다. 6월 25일 성모님 발현 기념일, 그곳에서 밤 11시에 발현목격증인 이반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근처에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저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보고 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성모님이 보인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마음 속에서 강하게 당기는 무엇인가를 느끼셨다고 하시며 "내가 희아를 업고 가봐야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 매니저 오빠가 "어머님, 허리 다치시면 안되잖아요!" 라고 말렸지만, 엄마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막무가내로 저를 업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등에 업힌 제가 굉장히 가벼워서 전혀 무겁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마르타 자매님의 주선으로 저도 8월 초에 열리는 국제 청년대회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국제 청년대회 담당자이신 당코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환자인 줄 알고 강복만 주고 가시려고 하셨는데, 마르타 자매님이 멋진 통역을 해 주셔서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 보시던 당코 신부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성

성모님께 당신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님께 당신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하자, 신부님은 작년 청년대회 때의 유니폼을 기념 선물로 주시며 제 몸이 작으니 올해 것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국제 청년대회는 이미 5개월 전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곡만 하라던 신부님은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며 제게 20분의 시간을 주시고 야외 제대에 피아노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7월 30일날 엄마품인 메주고리예로 다시 가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미사 때 성체를 모시고 난 후 곁에 있던 이태리 자매님이 갑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서 바라보니, 태양이 성체 모양으로 하얗게 변해서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빙 돌고 있던 태양 속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으시고 파란 띠를 매신 루르드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셨는지요! 장애인인 저를 위해 루르드 성모님 모습으로 발현하셨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성모님을 바라보시던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평화통일 기도와 함께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교황청에서는 매주고리예를 공식 인준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거룩한 성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늘에 있는 태양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례 마지막 날, 우리 순례 팀과 함께 숙소를 쓰고 있는 미국에서 온 45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는 키보드로 음악을 연주하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노래를 드렸습니다. 한 미국인 자매님이 말하기를 제가 '아베 마리아'를 부를 때, 성모님께서 제 뒤에 계시는 것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작은 꽃송이임을 잊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드브로브닉에서는 1700여 년 전의 시신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성 실바노의 성인을 보고 무척 은혜로웠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메주고리예 순례는 저에게 잊지 못할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그레고리오 회장님과 봉사자님들, 신경남 스테파노 지도신부님, 박창득 몬시뇰님, 김동수 지도신부님과 55차 순례 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하며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이 선교지를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메주고리예에 꼭꼭 가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김동수 노엘 신부님! 거룩한 제단 위에서 미사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

함께 한 모든 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 고맙습니다!

예수님! 메주고리예 성모 엄마 감사합니다. ~ 아~멘!!!!

믿지않는 이들을 위해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모성적 부름은 진리와 생명에 대한 부름이다.
생명인 내 아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온전히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너희는 내 아들을 알아야 한다. 다른 이들을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들 안에서 내 아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자유롭고 완전히 변화된 영으로 온전히 깨닫고, 의탁하게 될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지상에서 너희 마음 안에 하늘 나라를 모시게 될 것이다. 고맙다

2010년 7월 2일

'성모님, 희아를 당신께 드립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갑선 벨라뎃다 / 고덕동 성당

+ 하느님께 영광, 성모님께 기쁨!

저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희아의 엄마입니다. 지난 6월달 희아와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29주년 기념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평화로운 그곳에서 몸과 영혼이 푹 쉬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니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희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뜻이 성모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성모님, 이제는 희아를 당신께 드립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봉헌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봉헌을 즉시 받아 주시어 희아가 메주고리예 본당이 주관하는 '청년 국제 기도회'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느 새 25세의 성인이 된 희아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메주고리예에서도 그동안 보호해주시고 키워주신 성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와 노래를 봉헌할 것입니다.

6월 25일, 밤 11시에 성모님께서 순례자들을 발현산에 오라고 초대해주셨습니다. 그곳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한 국사람이 봉헌한 성모상이 있는 곳입니다. 희아가 메주고리예에 온 것은 한반도를 위해 봉헌 된 성모님께 불쌍한 북녘 동포들을 기억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희아를 업고 성모님이 계신 발현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렙은 내 허리에 무리가 올까봐 걱정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내 등에 업힌 희아는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발현목격증인 이반이 전해주는 그 날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성모님은 금색 옷을 입으시고 정말 기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모님 발현이 시작된지 29년이 되었지만, 오늘 밤처럼 성모님이 기쁘고 행복하신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미 예수님!**" 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쁘게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엄마가 기쁘게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 다오. 이 지친 세상에 나의 메시지들을 전파해 다오. 사**

남편은 몸만 불구일 뿐 정신과 마음은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살아있는 나의 표징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준 메시지를 받아들이라고 오늘 밤에도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나의 메시지를 실천하여다오. 자녀들아, 엄마가 항상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나의 아드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자녀들아, 오늘도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주니 고맙구나." 그날 밤 성모님께서는 이 곳에 모인 이들을 위해 손을 펼치시고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주시며 오랫동안 기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로이 잘 가거라.**"라고 인사하시며, 빛나는 십자가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나는 성모님께서 희아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척 행복했습니다.

남편과의 운명적인 만남

1975년 원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저는 상의군인 환자로 입원해 있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반신 마비여서 자동으로 자세를 바꾸어 주는 침대에 몸을 맡기고 8년여의 병원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마치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아무 표정도 느낌도 없어 보였습니다.

1967년 겨울은 남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혹한 일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북한 공작원들이 침투해서 남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가 폭약 운반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날 대간첩 토벌 작전에 쓰일 폭약을 실은 트럭을 운전할 동료가 술에 취해 있어서 남편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이 수북하게 쌓인 눈길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될 때 차에 실려 있던 폭약이 폭팔하는 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폭탄이 터질 때 정신을 잃었던 그 사람이 의식을 찾고 들은 첫 마디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냐…'고 통곡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22살에 육군 장교가 되어 가족과 고향사람들에게 늘 자랑이었던 아들이 순간적인 사고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증환자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1년여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지내던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 오는 아들에게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니 앞으로 나다닐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때부터 빛도 들어 오지 않는 어두운 골방에 갇힌 채, 절망속에서 살아 가던 남편은 몇 번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려고 했었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던 남편은 결국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왔답니다.

남편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수시로 몰핀 진통제 주사를 맞으며 지내야 했지만 의지력만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안중근 토마스 의사님을 존경하는 애국자로서 사회적인 봉사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중 우연히 병원에서 구두닦는 일을 하는 소년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소년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사람은 늘 무표정이던 때와는 달리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본 남편은 비록 평생동안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지만 몸만 불구일 뿐 정신과 마음은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 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다.

저는 평생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 곁에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 부딛쳤습니다.

애지중지 기른 딸이 10년의 나이 차이에다 하반신 마비의 불구자와 결혼한다니 친정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아버지는 나에게 마지막 통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후 부터는 친정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처음 시아버님을 만난 날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제 정신이냐? 나도 딸이 있지만 이런 장애자한테는 시집 못보낸다. 결혼을 하더라도 얼마 안가 이혼 할 것이 뻔한데… 그러잖아도 불쌍한 놈, 더 이상 마음 다치는 것은 싫다.' 시아버님은 친정까지 찾아 가셔서 우리 결혼을 막아 달라고 사정하셨답니다. 세월이 지나 남편은 그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결혼하자는 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앞일이 불안했노라고… 남편을 만난지 3년이 되는 1977년 10월 22일 우리는 여의도에 있는 보훈 회관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32살 제가 22살이었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나는 기쁨과 감격에 복받쳐서 하염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결혼생활이었건만 2년이 지났을 즈음에 저는 세상살이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상보다 현실이 앞서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 갈 자신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심각한 무기력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루에 혼자 누워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장에 할아버지 같이 인자하신 얼굴이 갑자기 보이더니 나를 내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고 눈가에 웃음이 가득한 그 미소가 얼마나 온유하고 다정하던지 나도 모르게 "앗! 저 분이 하느님이신가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간호사 공부를 할때 가톨릭 신자이던 선배가 선물로 준 신약

하느님, 이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서가 있었습니다. 성서가 그곳에 있는줄도 모르고 몇 년을 지냈는데… 저는 신약성서를 찾아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에 내가 살 길이 있었구나." 나를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시는 부분에서 나같은 죄인을 위해 수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마냥 울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하니 이제는 살 수 있을 것같았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 독일의 글라라 봉쇄 수녀원에 있는 친구 안젤라 수녀님이 통신교리서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서울 퇴계로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명동성당에서 교리를 받고 벨라뎃다 성녀의 이름으로 1981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당신은 모를거야!

어느 날 부터인가 좀처럼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감기에 걸린 듯하고 견딜 수 없이 피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아파도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 감기약과 멀미약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혹시나 하고 진찰을 받으니 뜻박에도 임신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있던 임신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몇달 동안 감기약과 멀미약을 계속 복용한 것과 늘 진통제를 맞고 사는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하던 나의 불안은 현실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때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는 아기의 발부분이 보이지 않고 손에도 이상이 있는 것같다고 하였습니다. 의사들은 아기가 심각한 사지 기형의 원인을 제가 임신인줄 모르고 자주 복용했던 약들과 중환자였던 희아아빠가 늘 복용하던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추측했습니다. 염려는 했었지만 막상 결혼 8년만에 얻은 아이가 비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남편과 시댁에서 나중에 알고 실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알리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약 때문에 아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대요.'라고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이를 낳아봐야 어쩔거냐고 하시며 낙태를 권했

습니다. 특히 장애자로 냉혹한 현실을 몸으로 겪고 살아온 남편은 '남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당신은 모를거야!' 라고 하며 아기 낳는 것을 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 22살에 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척추 중증 장애인이 되어 살아 온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친정과 시댁식구들은 신앙인이 아니었고 더구나 그 당시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장애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나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결코 하느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느님이 길러 주실거다.' 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던 아이를 낳겠다는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금쪽 같이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1985년 7월 9일 우리 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아의 얼굴을 본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기를 보면 마음이 더 아플 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외국으로 입양시키기로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시댁식구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키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 이러다가는 우리 아기와 얼굴도 못보고 헤어지겠구나…' 퇴원하는 날, 나는 시댁식구들이 방심하던 틈을 타서 신생아실로 가서 우리 희아를 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희아는 2.6Kg의 작은 몸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힘차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뽀얀 피부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었던지요. 우리 아기는 비록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다른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은 양손에 두 개씩뿐이었으며 무릎 밑에서 막대기처럼 가느다랗게 붙어 있는 다리는 걸을 수 조차 없어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같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아기를 외국으로 입양보내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 가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나는 지갑만 들고 포대기에 쌓인 희아를 품에 안고 곧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이 옥신각신 끝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생긴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

25년 전의 한국은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희아와 같은 중증 장애아는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하며 "도대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산다고 해도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아이도 행복할수 있는가? 이런 아이도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가?" 가족들이 염려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이 아이가 입양을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죽는 것이 행복한것인가? 어떤 것이 이 아이가 행복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갓난 아기의 머리맡에 하얀 옷을 입고 뱀을 밟고 계신 기적의 성모님상과 십자가상을 모셔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맑은 강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로 배듯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온 마음이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 오르며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아!

하느님이 우리 아기를 사랑하시는 구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아기를 바라보니 아기의 얼굴이 마치 보름달처럼 밝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기의 손을 펴서 보니 두 개 밖에 없는 손가락이 이제 막 피어나는 튤립꽃처럼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던 희아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도 기적의 성모님상을 바라 볼 때마다 인자하신 하느님의 미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아기를 바라보게 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희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생후 5개월이 됐을 때, 희아는 열 살도 안된 어린 나이에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을 본 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희생을 바치고 천국으로 들어 간 어린 성녀의 삶을 본받기를 바라며 희아친타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희아의 이름은 희아친타 앞의 두자입니다. 희아가 세 살이 되었을 때 걸을 수 없는 다리를 절단하는 대 수술을 받은 후 무릎으로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섯 살이 될 때까지도 몸이 약해서 늘 항생제를 달고 다니며 병치레가 많았던 희아는 여섯 살 때에는 숫자개념이 없어서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희아가 피아노 앞에 앉기를 원하셨다!

희야의 손가락은 관절이 있는 것은 네 개중에 한 개뿐이고 나머지 세개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손가락 마디의 기능이 없습니다. 희아가 여섯살이 됐을 때 힘이 없어서 연필도 쥐지 못하는 희야의 손가락에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피아노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학원에서는 희아가 피아노 악보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아! 하느님이 우리 아기를 사랑하시는구나...

줄 수 없다며 받아 주지를 않아서 학원을 찾아 6개월을 돌아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처럼 희아는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지능도 없었고 손가락 기능도 불가능하고 발이 없어서 페달을 밟을 수도 없기에, 희아가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무런 재능도 없다는 희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느님의 뜻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께서는 '희아가 피아노 치기를 원하신다.'는 강렬한 이끌림을 포기 할 수 가 없었습니다. 희아의 피아노 연습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먼저 악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악보를 이해하고 희아가 피아노 음들을 옮겨 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처절할 정도로 인내했습니다. 집안의 전화도 꺼버리고 희아가 화음을 만들어 낼 때까지 오직 피아노 연습에만 매달리는 강행군을 6개월이 넘도록 하였습니다. 두 개씩 밖에 없는 갸날픈 손으로 한음 한음 치면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다가 아프고 힘들다고 의자에서 기어 내려오는 희아를 다시 붙잡아서

앉히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희아가 너무나 측은했지만 '하느님은 희아가 피아노 치기를 원하신다.' 는 것 하나만 믿고 희아의 눈물을 모른척했습니다. 두 모녀를 보다 못한 남편은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오직 예수님과 성모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드디어 희아의 가날프고 작은 손가락에서 '나비야 나비야' 동요 한곡이 울려 나왔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앉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자 희아는 조금씩 악보를 읽었습니다. 보통아이들보다 아주 느린 상태였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를 저버리지 않으셨군요. 성모 마리아님. 우리 아기를 위해 전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부터 희아는 피아노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아는 성장하면서 성모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연주중에도 무대 위에서 하느님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곤 합니다. 희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TV를 통해 희아를 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희아는 네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통해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고통으로 절망하던 많은 사람들이 희아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느님은 살아 계시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희아는 특별히 우리 조국의 갈라진 북녘 땅 어두운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메주고리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감사드리며 희아가 국제 청년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당코 신부님과 애정어린 통역으로 봉사해 주신 마르타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 것없는 희아친타가 메주고리예 순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기도해 주신 김동수 신부님과 55차 순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며 앞으로도 희아가 성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편집실 나눔터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29주년 기념일 소식

2010년 6월 25일은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발현 기념 미사에는 189명의 사제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 했으며 전 세계에서 온 수 많은 순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고해성사의 은총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날도 고해성사를 받고자 기다리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메주고리예 본당과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제 55차 순례단

제55차 성지 순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자매와 가족들이 함께 하며 더욱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고 왜소한 몸이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기쁘게 살아가는 희아 자매는 오늘 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순례 마지막 날 저녁 같은 숙소에 있던 45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희아 자매의 체험담과 노래를 듣는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희아 자매가 의자 위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르자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 계신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한 외국인 자매님이 허리를 굽혀 희아 자매를 꼬옥 안아 주면서 "당신이 노래 할 때 루르드 성모님께서 뒤에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작은 꽃송이이고 빛나는 보석임을 잊지마세요."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희아 자매는 "아마 제가 장애자라서 루르드 성모님이 오셨을 거예요."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시간, 한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희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저렇게 가슴 조이며 살아 오셨겠구나.'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유 받은 토마스의 체험담

다음 날 아침 숙소 마당에서 미국에서 온 토마스라는 순례자의 얼굴을 보고 감짝 놀랐습니다. 늘 화가난듯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던 얼굴이 평화로 가득한 것을 보고 성모님의 손길이 닿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어제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늘 어둡고 무거웠던 당신 얼굴이 평화로 가득하네요!" 토마스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자신의 변화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부터 나는 심각한 급성 관절염 류마티스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환자가 되었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질 때는 그런 내가 창피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서 매일 불평 불만을 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제 밤, 그토록 장애가 많은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행복하다고 기뻐하는 그 자매를 보고 눈물이 나더군요. 작은 몸에다 손가락은 네개 밖에 없고 발도 없어서 무릎으로 걸으면서 살아 가는 하루 하루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그 작은 몸이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로 가득하더군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나는 평생 젊음을 즐기며 하고 싶은 것은 다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지금껏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겨우 지팡이를 짚고 다닐 뿐인데 창피하다고.. 다리 고쳐 달라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살아 온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토마스가 미소 띈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몸은 어제와 똑 같이 변한 것은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축복을 받고도 감사 할 줄 몰랐던 것이 내가 앓고 있는 진짜 병이었어요. 그동안 하루가 지나는 것이 지루하기만 하던 순례가 이틀 후면 끝나는군요. 평화스러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성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려고 성당에 가는 길이예요."

발현 목격증인 이반카의 정기 발현

6월 25일은 1985년 5월 7일 10가지의 비밀을 받은 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난 목격증인 이반카가 1년에 한 번 성모님을 뵙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6월 25일 발현은 이반카의 집에서 6분간 지속되었으며,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반카는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5번째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머니로서 주는 나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반의 기도회에 발현하신 성모님

25일 밤 11시에는 발현산 성모상이 있는 곳에서 발현 목격자 이반에게 특별 발현이 있었습니다. 이반은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습니다. "성모님과의 오늘 밤 만남은 특별히 기쁜날이었습니다. 발현이 시작된 지 29년이 되었지만, 오늘 밤 처럼 성모님이 기쁨에 가득 차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금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찬미 예수님!"** 하고 인사하시면서 저희 모두에게 기쁘게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엄마가 기쁘게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 다오. 나는 너희가 살아있는 나의 표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지친 세상에 네 메시지들을 전파해 다오. 그렇기에 내가 오늘 (6월 25일) 너희에게 준 메시지를 받아들이라고 오늘 밤에도 너희를 부른 것이다. 자녀들아, 나의 메시지를 너희들의 삶 안에서 실천해다오. 엄마가 항상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아드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자녀들아, 오늘도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살아 가는 너희가 고맙구나."

성모님께서는 말씀이 끝난 다음,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손을 펼치시고 오랫동안 어머니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순례자들이 가져온 모든 성물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지향들,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며 특별히 아픈이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머니의 축복으로서 저희 모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며 저는 성모님과 함께 주의 기도와 영광송을 바쳤습니다. 그 후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화로이 잘 가거라."**라고 인사하시며, 행복하신 모습으로 빛나는 십자가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카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 행 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 도 신 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 박사)
한국지부장 : 박연자
후 원 회 장 : 권수정
웹 관 리 자 : 제임스 윤, 이 토마스
편 집 위 원 : 최성득, 이금희, 최윤비, 이연숙, 김성주, 남미자
인 쇄 : 동방인쇄, 영인문화사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마르타, 강영애, 강옥주, 강재복, 강현정, 구경숙, 권숙하, 고경희, 고은솔, 길순행, 김건일, 김금성, 김동익, 김로사, 김마가렛, 김마데라, 김미카엘라, 김명대, 김명숙, 김세록, 김세정, 김수도, 김수현, 김시순, 김아가다, 김아그네스, 김안나, 김엘리자벳, 김옥희, 김영보, 김영서, 김원경, 김원희, 김유정,김재한, 김주희, 김춘자, 김카타리나, 김태화, 김혜정, 김효신, 노마리아, 노순자, 마리아, 문방자, 문홍식, 민정숙, 민헤레나, 박금자, 박마리아, 박마티아, 박병칠, 박소피아, 박숙진, 박연희, 박영실, 박정자, 박혜선, 박혜영, 백안셀모, 서애자, 서순희, 서영순, 서영희, 서정열, 성은교, 손글라라, 손덕준, 손현숙, 송정순, 신순덕, 신영선, 신현철, 심문자, 심현미, 심세실리아, 안연숙, 엄봉화, 엄용덕, 원명희, 오글로리아, 오다니엘라, 오미정, 우동춘, 유글라라, 유보영, 유혜란, 윤일모, 예길자, 이골롬바, 이기선, 이동우, 이동희, 이로즈마리, 이마리아, 이민경, 이민희, 이보리나, 이봉주, 이선주, 이선화, 이세실리아, 이수은, 이순세, 이순자, 이시훈, 이요셉, 이윤경, 이윤영, 이윤재, 이영분, 이은희, 이인숙, 이제옥, 이재열, 이재현, 이종훈, 이해연,이동희, 임레오니아, 임순복, 임효경, 장레지나, 전아네스, 전현숙, 정광선, 정금희, 정데레사, 정명화, 정영, 정재항, 정재희, 정지혜, 정찬례, 정홍영, 조도희, 조성희, 조안나, 조은자, 주정숙, 진도미니카, 지니김, 차세실리아, 차수미, 차순구, 최경숙, 최도경, 최루시아, 최미카엘라, 최스텔라, 최상환, 최선영, 최종금, 최태환, 편까리다스, 팽정숙, 한광률, 한경숙, 한미경, 황계자, 황혜정, 허희선, 호춘애, 홍기문, 홍데레사, 홍엘리사, 홍옥선, 메릴랜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 55차 순례단과 지도신부님, 익명

K. Larcenaite, Nansoon Buffington, Cynthia Ziegmann, Agatha Phillips, Yoon Lee, Eileen Cho, Lisa Rigoni, Young Bahn, Tak U. Lee, Kwon Yung, Joo Kim, Susanna Russell, Jae Kang, Sun Hui Lamb, Liga Rigoni, Joanna Bogusky, Sophia H. Lee, Kyung Y. Han, young song, Young Choe, Insuk Mullins, Kyong Suk Meeryvacd, Yoon Auh, Mee R. Kang,

- **지난호 부족금을 보내주신 익명의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발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월금	- $5,764.80
일반 후원금	$8,894.00
지난호 부족금 후원(익명)	$5,764.80
후원금 합계 :	$14,658.80
지출	
56호 소식지, 반송봉투, 통신비, 교통비, 발송비, 사무실 비품 및 운영비	$12,230.96
이월금 (지난호 부족금)	$5,764.80
총지출액	$17,995.76
현재 부족금	- $ 3,336.96

쉼터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평화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의 일부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한다면 당신에게는
그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시도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로사리오 성월 성지순례

1진 순례 : 2010년 10월 3~15일 (12박 13일) $ 3,150 (JFK 출발)

순례지 : 산 조반니 로톤도 성비오신부님의 무덤 방문 및 기념성당순례,
몬테카지노의 분도성인–수도원 방문, 교황님 일반 알현 참석, 성 베드로 성당, 란떼란 대성당,
사도 바오로 참수터성당, 성 바오로 대 성당, 성모마리아 대성당, 꼴로세움, 기타 로마 유적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조홍래 부제 서품 미사 참석, 성프란치스코기념성당, 성글라라성당, 뽀르지운 꼴라,
아씨시, 로레토, 성모님 생가성당방문

메주고리예 : 발현산, 십자가산, 청십자가, 부활청동상,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원,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체나콜로, 어머니 마을, 발현 목격증인들의 체험담, 메주고리예 특유의 음악과
찬미로 진행되는 본당의 은혜로운 저녁 예절인 묵주기도와 미사와 치유의 예절, 성시간, 십자가 경배

드브로브닉 : 아름다운 아드리아해의 성곽도시, 1700년전에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과 성지 방문

2진 순례 : 2010년 10월 7~15일 (8박 10일) $ 2,290 (EWR 출발)

1진의 메주고리예와 드브로브닉 순례와 동일합니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순례단장 : 남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마감 : 2010년 8월 15일

문 의 처 : (미국)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02-2281-3236 /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PRSR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